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보성군,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 호응

보성군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서울, 경기 출향향우와 자녀 4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출향향우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고향 바로알기 문화탐방'은 향우들에게 보성의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경관을 둘러보며 우리 고향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애郷심을 가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군청 소회의실에서 이용부 군수를 비롯한 실과소장 10여명과 함께 군정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태백산맥문화관, 공룡관광의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보성비룡공룡공원, 이순신 리더십 교육장 '방진관', 한국차박물관, 보성차밭 등 보성 곳곳의 아름다운 역사·문화 관광지를 둘러보며 고향의 향수를 만끽했다.

서울·경기 출향향우 등 40여명 참여
역사·문화 관광지 둘러보며 향수 만끽



또한, 녹차 만들기, 다례교육, 제암산 자연휴양림 쪼리인 및 '너른길' 산책, 판소리 성지 등 체험 프로그램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에 참여한 향우는 "우리 고향의 역사와 문화 등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되었고, 고향의 변화와 발전된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다"고 전했다.

이용부 군수는 "고향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고향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며 "문화탐방을 통해 출향 향우 자녀들이 올바른 역사·문화 함양과 고향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향우들의 끈끈한 인연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관광 2천만시대' 간담회 개최

사회단체 70여명 초청...추진사항 설명·여론 수렴



고흥군은 지난 17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각 사회단체장 70여명을 초청해 고흥관광 2천만시대 성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고흥관광 2천만시대' 붐 조성을 위해 고흥군 관광의 현주소 및 그동안 추진사항에 대한 설명과 지역 여론 수렴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마련됐다.

박병중 고흥군수는 "행정이 지역발전의 방향기를 잡았다면 여러분은 이를 완성하는 동력이라 할 수 있다"며 "지역발전은 행정

의 힘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단체장들이 지역사회의 리더로서 '고흥관광 2천만시대'를 열어가는 데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사회단체장과의 대화시간에서는 관광 발전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함과 더불어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진행됐으며, 관광으로 인구 질벽을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지난 3월 14일 '고흥관광 2천만시대'라는 타이틀을 걸고 관광산업 육성에 고흥의 미래를 걸었으며 (주)모두투어 네트워크, 한국철도공사, 한국관광공사, 국제여행사 관계자 등 600여명을 초청하여 '고흥관광 2천만 시대 도약의 원년' 비전 선포식을 가진 바 있다.

함평군, 노인 대상 하반기 사회교육 프로그램 개강

함평군이 함평군노인복지관에서 17일부터 12월7일까지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정보화 건강체조, 취미, 여가교실 등 13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역 어르신들에게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를 제공하고 활기차고 보람 있는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실시한다.

올해는 13개 프로그램에 18개반을 운영한다.

평생교육에 한글초급 2개반을, 정보화교육에 컴퓨터기초 2개반과 인터넷활용반이 개설된다.

건강체조로는 요가교실(수리아, 찬드라), 차명댄스, 문화댄스, 기공체조 반이 각각 열린다.

국악민요, 신명난장단, 우리춤 등 우리 전통음악과 춤을 배우고 즐기는 시간도 마련된다.

취미와 여가를 위해 노래교실 2개반과 오카리나, 신바람난타 교실도 운영된다.

음악활동을 통한 사회참여를 돕기 위해 시니어합창단도 참여자를 모집한다.

배우기를 원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수강료는 1만원(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시니어합창단과 노래교실은 무료다.

운영요일과 시간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노인복지관(061-323-5518)로 문의하면 된다.

함평=김광춘 기자

장성군, '복분자 명품화 사업' 큰 열매 맺었다

베리류 스토리텔링화·6차산업화·농가소득 증대 등 결실



갖춘 베리류를 융복합해 소비자 기호에 맞는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며 ▲생산·가공·유통·체험을 복합적으로 연계한 6차산업화를 통해 부가가치를 향상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장성군은 ▲복분자 통합 영농조직 결성 ▲복분자 융복합 상품 개발을 위한 소비자 선호도 조사 및 전문 연구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상품 개발 ▲복분자 선진화를 위한 상품권 출원 및 특허 등록 ▲신세대 입맛에 맞는 가공 상품 개발 등을 전략 과제로 삼았다.

장성군 특산물인 복분자를 명품화하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장성군은 지역농업 특성화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2개년 계획으로 실시 중인 '장성 복분자 명품화 조성사업'이 재배면적 확대, 가공 기반 조성, 체험·가공 프로그램 개발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2일 밝혔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전국 최대 규모의 친환경 복분자 전문 생산 단지를 육성하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틈새시장을 개척하는 사업을 벌여왔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전국 최대 규모의 복분자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명품화 사업으로 ▲베리류 스토리텔링화 동화책 제작(500부) ▲노동력 및 생산비 30% 이상 절감 ▲4종 베리류 선물 꾸러미 개발(2,000부) 등을 추진해 왔다.

특히 지난해 복분자를 비롯해 오디, 블루베리, 딸기, 아로니아 등 베리류를 스토리텔링화한 동화책 'VERY베리북' 제작해,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베리류의 효능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무료로 배포해 오고 있다.

장성군은 또 분말 등 가공식품 생산량 확대, 생과 음료화 등으로 농가 수익 증대를 꾀했다고 밝혔다. 장성군은 1만2,000원어치 생과 1kg을 150g으로 분말화하면 1만 8,000원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생과를 음료화하면 수취 가격이 두 배로 향상한다고 했다.

6차산업 활성화 사업도 결실을 거뒀다. 장성군은 복분자 6차산업에 참여한 농가들의 매출액이 2015년 33억원에서 지난해 36억원, 올해 4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유두석 장성군수는 "복분자 명품화 사업을 통한 융복합 상품 개발, 가공식품 개발 등으로 재배 농가의 소득이 향상됐다"면서 "기능성 제품 개발을 확대하고 체험형 홍보 활동을 강화해 소득 늘리기 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장성=변정모 기자



영광군, 멘토-멘티 결연식 개최

신규공무원 조직 적응력 향상과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 위해

영광군은 지난 14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신규공무원의 조직 적응력을 향상시키고 소통·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한 2017년 영광군 멘토-멘티 결연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멘토로 선정된 선배 공무원 50명과 새내기 후배 공무원 98명이 참석한 가운데 멘토링 운영 개요 설명, 멘토-멘티 선서문 낭독, 부군수 인사말씀, 부군수와의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명원 부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새내기 공무원에겐 첫 상사가 중요하다. 멘토로 선정된 선배공무원이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하여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처럼 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부군수와의 대화의 시간을 마련하여 공식생활에 대한 조언과 함께 새내기 공무원들의 궁금한 점을 듣는 소통과 화합의 시간을 가졌다.

결연식 이후 멘토, 멘티는 자율적으로 월1회 이상 만남의 날을 통해 선배공무원의 지식 및 경험 공유, 애로사항 상담시간을 갖는 등 새내기 공무원의 적응력 향상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특히, 영광군에서는 2부3일 합숙 교육인 멘토링 멘티랑 힐링캠프를 개최하여 상호간 유대관계를 강화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영광=서희권 기자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가족처럼, 친구처럼 오래오래~
우리 결연 언제나
우체국예금, 우체국보험이 있습니다.
쓸때마다 즐거운 우체국 체크카드,
든든하게 힘이되는 우체국보험,
행복한 꿈을 주는 우체국예금까지
이제, 우체국에서 만나세요~

언제나 내곁에 ~ 우체국 예금 우체국 보험